

한국 현대무용 토착화과정에서 박외선의 역할

김주희* · 정의숙**

I. 들어가는 글	V. 나오는 글
II. 박외선의 성장과정과 예술가로의 활동	참고문헌
III. 대학무용의 시대를 연 박외선	Abstract
IV. 한국의 현대무용 형성과정 속에서 박외선의 의미	

I. 들어가는 글

전문 무용교육이 미흡했던 시절 대학에서 처음으로 현대무용을 가르치고, 무용을 정식학과로 창설한 인물이 바로 박외선(朴外仙, 1915-2011)이다. 박외선의 이러한 행보는 학문화되지 않았던 춤을 아카데미즘으로 이끌었으며, 현대무용을 대학 학문의 전공으로 안착 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대학 내 학과 설립은 무용 전문 인력을 빠르게 배출하였고, 배출된 전문 인력은 전국의 각 대학에 포진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춤 연구소 대신 대학무용단체를 중심으로 성장하는 양상을 맞게 되었다.

이러한 그녀가 한국 무용사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은 각종 세미나나 토론 등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박외선에 대한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학술연구는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그 이유는 1977년 이화여대를 퇴직한 후 오랜

* 주저자, 성균관대학교 무용학 박사

** 교신저자, 성균관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soochung@skku.edu

시간동안 도미로 인해 후학들과의 교류나 춤 공연, 학술, 저술과 같은 활동이 충분히 연계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노환으로 인해 구술채록, 인터뷰 등 전문 연구의 진행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박외선의 교육철학과 학술 및 무용 활동을 재조명하여 한국 현대무용사 속 그녀의 역할을 살펴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박외선이 대학무용 시대를 연 이후 무용학과 수가 급격하게 팽창, 확장되었다가 현재는 축소, 통폐합, 폐과와 같은 변화양상을 맞이하는 시기성에 있다. 다시 말해 이러한 변화 과정 속에서 무용학의 초석을 마련한 선진(先進)의 열정과 업적을 재고함으로써 앞으로의 전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 사료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2011년 96세로 타계한 이후 사후평가를 한다는 것은 그녀의 활동사항을 한국 무용사적 맥락에서 다시보기 한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무용가이자 교육자로 활동하면서 직접 저술한 저작과 회고록을 기초자료로 삼았다. 특히 1977년 『춤』에 두 번에 걸쳐 기고한 「나의 무용에의 회고」¹⁾와 저서에 실린 저자 약력은 본고의 이론적 배경으로써 적극 인용되었음을 밝힌다. 저서로는 『現代舞踊創作論(현대무용창작론)』(1977)²⁾과 『舞踊概論(무용개론)』(1961),³⁾ 『중등 새무용』(1975)⁴⁾이 있다. 이 책들의 구성 안에서 작가의 주관적 소회(所懷)가 담긴 서문과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려 하였다. 『현대무용창작론』의 경우 도미 후에 출판이 된 책으로 이화여자대학교 퇴직 후의 활동을 짐작해볼 수 있었다. 『무용개론』은 1961년도 초판 이후 1989년에 다시 재판되었다. 초판과 개정판을 비교해 보았을 때 목차 구성 및, 내용, 사진 등이 바뀌지 않아 본고에서는 보존 상태가 더 양호한 재판된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논문으로는 이화여자무용학회가 발행한 학술저널 『무용』에 2편으로 나뉘 실은 「舞踊(무용)에 있어서의 創作(창작)<1>」(1967)⁵⁾과 「舞踊(무용)에 있어서의 創作(창

1) 박외선(1977), 나의 무용에의 회고. 『춤』, (2011년 11월호), pp. 100-126.

2) 박외선(1977), 『현대무용창작론』(서울: 보진제), p. 13.

3) 박외선(1989), 『무용개론』(서울: 보진제), p. 35.

4) 박외선(1975), 『중등새무용』(서울: 문우사).

작)〈2〉(1968)⁶⁾을 참고하였다.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체육대학에서 발간된 『健美(건미)』(1975)에 게재된 「教育舞踊(교육무용)의 指導法(지도법)」⁷⁾을 통해 그녀의 교수법을 들여다보았다. 이 뿐 만 아니라 당시 인터뷰와 신문에 기고된 글, 1974년 12월 21일 한국에서 갖는 첫 개인 공연 프로그램,⁸⁾ 공연 비평자료, 잡지자료, 제작자들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구체화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2장에서는 성장과정과 무용에 입문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고, 전문무용교육을 받으면서 스타급 예술가로 부상한 과정과 활약상을 정리해 보았다. 3장에는 이화여대를 기반으로 한 교육자의 면모와 창작활동, 교육 활동 등을 조사하였다. 4장에서는 한국의 현대무용 형성과정 속에서 춤의 위상을 지성화로 이끌고, 창작예술 교육을 체계적으로 보급하여 무용계를 발전기로 돌음할 수 있게 한 그녀의 역할과 그 의미에 대해 논의하였다.

연구에 앞서 신문기사나 회고, 서문 등에서 보이는 작가의 면모를 드러내기 위해 그대로 인용하여 삽입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의 띄어쓰기, 문단의 구성은 논문 형식에 맞게 연구자가 임의로 재구성하였다. 또한 박외선의 자료나 연구가 미흡하여 기존의 연구들이 박외선의 『춤』(1977)에 기고한 「나의 무용에의 회고」에 실린 내용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었다. 보다 많은 자료를 찾아 이를 보완하려 했으나, 박외선의 성장배경과 춤 입문 과정과 관련한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아 『춤』(1977)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되었다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II. 박외선의 성장과정과 예술가로의 활동

한 예술가가 탄생하기까지 그 예술가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주변인물들이 있

5) 박외선(1967), 무용에 있어서의 창작(1), 『무용』 2.

6) 박외선(1967), 무용에 있어서의 창작(2), 『무용』 3.

7) 박외선(1975), 교육무용의 지도법, 『건미』 1.

8) 2005년 무용평론가 김영태가 아르코예술정보관에 기증한 팜플릿을 참고하면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후원을 받아 1974년 12월 21일(토) 국립극장 '차외仙 現代舞踊 公演(박외선 현대무용 공연)' 이 3시, 7시 2회 공연되었다.

다. 그 주변 인물들을 살펴보는 것은 예술가의 작품과 활동의 근거를 파악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예술가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들을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박외선이 예술가로 성장하는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 인물들과 춤 수련과정에서 창작활동을 한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 박외선에게 영향을 미친 인물들

박외선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부모님 보다는 할머니에 대한 소회가 깊음을 밝히고 있다. 그녀의 할머니는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던 시절 국문을 쓸 정도의 지성을 지닌 분이셨으며, 손녀딸의 고등학교 교육을 시킬 정도의 경제적 여건을 지녔었다. 또한 낭만적인 감성과 따뜻한 정이 많았던 할머니와의 생활은 훗날 후학을 양성하면서 강조하였던 인성적 측면과 맞닿는다. 박외선은 제자들에게 폭넓은 교양과 겸손한 마음에 대한 역설(力說)로 “무용가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자”라는 말을 강조하였는데, 그녀 스스로도 동대문 시장의 구제품 구두를 신고 다닐 정도의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퇴직금을 장학금으로 쾌척하는 실천적인 모습을 지녔었다.

박외선의 아버지 박상훈과 어머니 박말보의 사이가 좋지 않아 일찍이 할머니의 손에서 자란 어린 시절의 경험은 마해송⁹⁾과 결혼 후 가정을 위한 삶을 충실히 살게 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 짐작된다. 『삼천리』(1941)에 첫째 아들 마중기의 육

9) 박외선을 조명하는데 있어 그의 남편 마해송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신무용가 조택원이 무용발표회 홍보와 후원을 상의하기 위해 춤 파트너인 박외선을 대동하고 당시 『모던일본』 사장으로 있던 마해송 선생을 찾은 것이 인연이 됐다. 그의 부친은 마응휘(馬應輝)이며 칠남매 중에서 넷째이며, 본명은 마상규(馬湘圭)로 개성에서 태어났다. 1919년 서울 중앙고등보통학교를 중퇴하고 보성고등보통학교에 다니다가 다시 동맹휴학사건으로 중퇴했다. 1920년에 니혼[日本]대학 예술과에 입학, 홍난파(洪蘭坡) 등과 동경 유학생 극단 '동우회'를 조직하는 등 문화운동에 첫발을 내디뎠고, 1923년부터는 동화를 쓰기 시작하였다. 「바위나라와 아기별」, 「어머니의 선물」 등을 『어린이』지(誌)에 발표하는 한편 방정환(方定煥) 등과 함께 '색동회' 동인이 되어 어린이를 위한 문화활동을 본격적으로 벌였다. 졸업 후 일본 문단의 권위자 기쿠지 칸의 문학생으로 일본 문예춘추사(文藝春秋社) 입사한 후, 편집장을 거쳐 1930년 10월에는 직접 『모던일본』을 창간해 유력 대중연예잡지로 키워낸 인물이다. 일본 문화계에서 조선인 마해송은 식민지배하에 제국의 한복판에서 일본인을 호령하는 통쾌함을 과시한 보기 드문 인물로 회자된다. 1945년 8·15광복 후에 귀국하여 국방부 한국문화연구소 소장으로 있다가, 6·25전쟁을 맞아 중군문인단의 일원으로 전선에 참가, 그때의 체험을 『전진(戰塵)과 인생』이라는 수필집으로 펴냈다.

아일기를 기고한 글이나 애 넣은 지 4~5일 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남편의 회사 사원들 32명 모두를 초대하여 상을 차려 준 일화 등에서 지고지순한 현모양처로서의 삶을 엿 볼 수 있다. 이렇듯 마해송과의 결혼은 예술가의 삶 보다는 교육적 행보를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고 판단된다. 마해송과의 첫 만남은 도쿄에서 활약 하던 무용가 조택원의 「제 1회 창작무용 발표회」(1937) 중 「만종(晩鐘)」과 「카푸리 치오」의 파트너로 출연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그 당시 최고의 문화지성인이었던 마해송은 일본 월간지 사장 겸 문예지 편집장으로 활동하였던 인물로 일제 강점기 시절 한국인 문인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한 입지적 인물이었다.

회고록을 참고해 보면 박외선은 동료나 후배들의 공연을 보고오거나 바깥출입을 하는 것에 대해 매우 싫어한 가부장적인 남편의 일화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박외선은 ‘남편이 댄스구락부에 내려주고 가서 하루 종일 춤을 추고 왔다’는 이야기를 제자 정의숙에게 한 적이 있으며, 대학무용교육 연구를 하기 위해 동경에 방문한 것을 기고한 『동아일보』(1965)를 보면 마해송의 세심한 외조를 엿 볼 수 있다. 이 신문기사에서 마해송의 개인적 업무가 없음에도 자신을 위해 동행하여 편의와 혜택을 입은 고마움을 전하고 있다.¹⁰⁾

그녀에게 큰 영향을 미친 또 다른 중요인물로 최승희와 다카다 세이코를 들 수 있다. 마산여고 3학년 시절 마산극장에서 개최된 최승희의 공연을 보고 감명 받아 무용가가 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방학 때 몰래 집을 나와 최승희의 서울 서빙고 집으로 찾아가 다리를 올려보라는 테스트를 받고, 몇일 후에 열리는 최승희의 단성사 공연에서 「여성전선」, 「안단테 칸타빌레」 군무로 출연하였다. 최승희의 밑에

1957년 대한민국어린이헌장 초안을 작성했으며 1958년 대구(大邱)에 어린이헌장비를 세웠다. 같은 해 장편동화 『모래알 고금』, 수필집 『요설록(饒舌錄)』을 간행하였으며 아세아 자유문학상을 수상했다. 초기에는 주로 어린이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한 환상적 경향의 동화를 많이 썼으나, 후기에는 『모래알 고금』, 『명명 나그네』 등과 같은 세태고발적인 동화를 써서 성인에게도 많이 읽혔다. 1967년 해송 동화상을 제정하였다가 2회로 중단되었다.

10) “이번여행은 순전히 무용연구를 위한 것이었고, 대학무용교육의 일본국의 방법을 비교 연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남편(마해송)이 마음에도 없는 재유를 하게 된 것도 순전히 나 때문이었다. 내가 혼자 오는 것 보다는 그가 동행해주어야 더 편의와 혜택을 입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는데 그것은 틀림없는 일이었다.”

서 1달 정도 수련을 받다가 수소문 끝에 찾아오신 할머니를 따라 다시 마산으로 내려간다. 서빙고 연습실을 떠나기 전 최승희는 이시히바쿠 보다는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 선생님에게 배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을 하며 다카다 세이코의 주소를 알려주었다. 마산에 내려 온 박외선은 바로 다카다 세이코에게 편지를 보냈고, 그녀의 답장을 받은 후에는 마산여고 2월 졸업을 위한 졸업시험도 치루지 않은 채 11월에 동경으로 떠나 버린다. 유교적 사회 관습이 강했던 당시 집을 나간 박외선은 문제소녀로 마산에서 취급받지만, 오히려 춤에 대한 열정을 키운 일화에서 그녀의 당찬 면모를 확인 할 수 있다.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준 남편과 따뜻한 감성으로 정성껏 키워준 할머니는 박외선의 작품 활동과 교육적 맥을 이어나가는데 밑거름이 된다. 뿐 만 아니라 전문적인 춤을 출 수 있도록 도와준 최승희와 다카다 세이코는 창작적인 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주었다는 점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다. 다음 장에서는 예술가로 성장하는 과정과 춤을 배우는 과정 속에서 창작 춤을 춘 활동사항에 집중하여 살펴보겠다.

2. 예술가로서의 성장과정과 춤 수련과정

어린 시절부터 예술적 소질이 남달랐던 박외선은 초등학교 6학년 당시 일본인 담임선생님이 이시니고나미(石井小浪)의 안무 책을 읽고, 스텝을 가르쳐줘서 「한 떨기 장미 꽃」이란 작품을 춘 적이 있다.¹¹⁾ 춤을 좋아해 학교에서는 춤 잘 추는 학생으로 소문이 나 학교 행사 때 마다 대표로 뽑혀 춤을 출 정도였다고 하니 그녀의 춤 솜씨가 좋았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낭만적인 감성을 갖은 할머니의 영향 때문인지 중학생 박외선이 우연히 본 알렉산드르 사하로프(Alexandre Sakharoff)¹²⁾의 「뜰의 소녀」 사진은 예술적 영감을 불러 일으켜 춤에 대한 열정을 막연하게 키우게 되었다. 「뜰의 소녀」의 청아한 이

11) 문애령(2003), 표현주의 현대무용의 한국 도입과정에 대한 고찰, 『대한무용학회논문집』 36, p. 27.

12) 러시아의 무용가로 사하로프무용으로 불릴 만큼 독특한 무용으로 명성을 인물이다.

미지는 훗날 동경청년회관(東京青年會館)에서 열린 ‘박외선 제 1회 창작무용발표회’ 레파토리 중 「카프리스」(1935)라는 작품에서 물고기가 수중을 매끄럽게 헤엄쳐 가는 듯 한 느낌의 독특한 동작으로 창작되어 구현되었다.¹³⁾

세이코 무용 연구소는 동경의 히비야 공회당에서 1년에 한 번, 해외 공연 또한 매해 한 번씩 하는 것 외에도 지방 공연이 많았으며, 토슈즈는 다카나 선생이 허락해야만 신을 수 있는 환경이었다.¹⁴⁾ 토슈즈는 2년 만에 신는 것이 보통이었고, 잘하는 사람의 경우 1년 만에 신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박외선의 경우 8, 9개월 만에 신었다는 점과 6개월째부터 연구소에 수업료를 안내고 스테이지에 서는 값으로 오히려 소액의 월급을 받았다는 일화에서 박외선이 무용을 배우는 속도가 빠르고, 상당히 높은 실기 능력을 갖췄음을 알 수 있다.¹⁵⁾

또한 3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산사회관에서 열린 4학년 졸업생 발표회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때 출연한 작품은 「갱생(更生)」이라는 작품으로 클래식 발레를 기본으로 짠 창작이었다.¹⁶⁾ 당시 일본에 마사 그라함(Martha Graham)식의 테크닉은 보급되지 않았지만, 이시히 바쿠를 통해 마리 뷔그만(Mary Wigman)식의 표현주의 춤이 들어왔을 때였다. 「갱생」은 표현주의적인 춤은 아니었지만, 이미 박외선은 기존의 동작을 바탕으로 새롭게 창작되어지는 춤을 경험한 것이며, 회고록에서도 이 작품을 현대무용에 속하는 작품으로 소개하고 있다.

1934년 4월 동경 음악학교 무용 강사로 활동한 후, 1934년 동경에서 ‘신에 무용가 탄생’이라는 언론의 찬사를 받으며 화려하게 데뷔한다. 일찍이 박외선은 무용수로서의 역량 뿐 만 아니라 교육적인 활동도 함께 하였다. 그리고 당대의 신여성으로써 1935년부터 3년간 월간지 『소년(少年)』과 『소년중앙(少年中央)』에 아동 무용작품에 관련된 글을 연재하였다.¹⁷⁾ 바쁜 활동 속에서 1936년부터는 일본 전국 각지를 비롯해 대만, 중국, 만주 등의 순회공연 등을 하였으며, 세이코 연구소에서

13) 서진은(1996), 한국의 무용예술과 교육에 대한 박외선 연구, 『예술문화논총』 5, p. 2-7.

14) 박외선(1977), 나의 무용에의 회고. 『춤』, (2011년 11월호), p. 111.

15) 앞의 책, p. 111.

16) 앞의 책, p. 112. 당시 세이코의 무용 연구소는 지금의 대학과정과 같이 4년 과정이었다.

17) 서진은(1996), p. 6.

가장 주목 받는 주역 무용수로 성장하였다.

개인 발표회에서 소개된 「사랑의 꿈」(1935)은 리스트(Franz Liszt)의 곡에 맞춰 추어진 춤이었으며, 「압박받는 사람에게 영광 있으라」(1935)는 작품은 일제치하에서 조선인이라는 자각과 민족의식이 투영된 작품이었다. 시대정신이 담긴 그녀의 창작 작품은 현대무용이 뜻하는 '컨템포러리(contemporary)'의 '동시대의', '당대의'란 뜻을 충분히 담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실제로 「압박받는 사람에게 영광 있으라」는 조선유학생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자국의 전통과 민족성을 창작의 원천으로 삼고자 하는 그녀의 의지는 시인 이육사가 『창공』(1937)에서 한 인터뷰에도 피력되어 있다. 인터뷰 내용을 보면 “...조선의 고전 무용이라고 해도 저는 생각하기를 어떤 의상이라든지 그런 형식에 제약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가령 옷이야 어떤 것을 입었든지 새로운 발레를 춤추려는 노력뿐입니다...”라고 말한다.¹⁸⁾ 박외선은 인터뷰 당시 ‘현대무용’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현대무용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그러한 춤을 지향했음을 알 수 있다.

무용연구소에 스케일이 큰 영화 섭외가 들어오자 다가가 선생은 박외선을 추천한다. 오기나와를 배경으로 한 「오야게 아가하지」(1936)에 안무와 출연을 하면서 한층 더 일본 문화계에서 주목받는 스타로 발돋움하게 되었고, 창작무용 발표회를 가진 이래 10년간의 일본생활을 통해 다양한 무용 형태를 도입하여 활발한 무용을 하였다. 이렇게 화려한 젊은 시절을 일본에서 오랫동안 보낸 만큼 은퇴 후에도 미국의 재팬타운(Japan town)에 자주 들러 그 시절을 그리워 하셨다고 제자 정의숙은 스승의 대한 기억을 전한다.¹⁹⁾

III. 대학무용의 시대를 연 박외선의 활동

1. 이화여자대학에서의 무용학과 창설

일본 유학 당시 문화학원 불문학과를 다니면서 세이코 무용연구소 문화생으로

18) 이육사(1937), 舞姬(무희)의 봄을 찾아서-박외선(朴外仙) 양 방문기, 『창공』 1.

19) 정의숙이 미국유학시절 방문한 스승 박외선의 경험담 회고.

춤 배우기 시작했던 박외선은 조선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발레 정식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회고록에서 기술하고 있다. 당시 세이코 무용연구소는 수료 기간이 없는 지금의 학원형태가 아니라 수업과정이 체계적으로 있는 4년 과정이었다. 이 과정은 4년 동안 다양한 테크닉과 여러 장르의 무용을 배우고, 졸업발표회를 통해 졸업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는 점을 미뤄봐서 지금의 무용학과와 유사한 형태로 짐작된다.

예술가에게 학력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 박외선은 문화학원을 시간과 경제적 사유로 중퇴한다. 하지만 그녀는 꾸준한 교육활동을 통해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여러 교육적 활동을 통해 알 수 있다. 마혜송과 결혼 후에도 1946년 개성에서 전국학교교육 무용지도자 강습회를 개최하거나, 본격적으로 1953년 1월 대구시 교육청의 무용 강습회에 나가 지도를 하였다.

본격적으로 교육자의 길로 들어서는 데 있어 마산여고 1년 후배이자 음악을 전공한 홍은혜의 영향이 컸다. 홍은혜의 소개로 1953년 10월에 이화여자대학교 체육과 강사로 들어간 후 1957년에는 부교수, 1960년 4월에는 체육과 교수로 임용이 되면서 1963년에 2월에 한국 최초의 무용과를 이화여자대학교에 창설하였다. 신설되는 과정에 대해 육완순은 “박외선선생께서 당시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이었던 김활란 선생에게 계속 의논을 그려 창설되었다”라고 설명하였다.²⁰⁾ 이러한 박외선의 적극성은 1977년 퇴직하기 까지 새로운 춤을 전수하고, 무용학 정립을 위해 노력한 면에서도 발견이 된다.

이화여대에서의 무용학과 창설은 초창기 한국 현대 무용가들이 여성 중심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유교적 관습이 강했던 한국 사회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무용을 전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조택원, 임성남, 송범 등과 같은 남성 신무용가들이 비교적 활발히 활동했던 한국 근대무용사를 생각해보면 남성 현대 무용가들의 배출이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박외선이 여대에 무용학과를 최초로 개설함에 따라 초기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각 대학에 포진되면서 여성 현대무용가의

20) 문애령(2003), p. 35.

시대를 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무용학 개설 후 1963년에는 문교부 학술연구 심의위원으로 활동하였고, 1968년 7월 노스 캐롤라이나 아트 스쿨(North Carolina Art School)에서 개최된 하계 무용학교에 참가하였으며, 동서 무용의 차이에 관한 강의를 하였다. 1973년에는 미 시건대학교 앤 아버(University of Michigan at Ann Arbor)에서 비올라 페버(Viola Farber)의 지도를 받고 여름 워크샵에 참석하거나, 뉴욕에 있는 머스커닝햄(Merce Cunningham) 연구소에서 가셔도 수업을 수강하였다. 이런 점들로 볼 때 컨템포러리 댄스를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해외 학술 교류를 통해 한국의 춤 학문을 소개하여 학술의 지평을 열었음을 알 수 있다.²¹⁾

2. 예술가로서의 창작활동

박외선을 논의할 때 전공을 현대무용, 혹은 발레나 창작무용으로 구분짓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앞장에서도 언급했듯이 박외선은 시대성을 담아 창작을 하는 현대무용의 형태를 이미 따르고 있으며, 그녀가 끊임없이 새로운 테크닉을 받아들이는 면모를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애령(2003)은 박외선이 정규 현대무용 수업을 받지 않고, 호텔방에서 테이블을 치워 놓고, 마사 그라함의 수제자에게 1시간 30분씩 배운 수련과정이란 점에서 전문성이 떨어짐을 지적한 바 있다.²²⁾ 하지만 본고에서는 현대무용 테크닉 또한 개인의 창작적 기법에 대한 체계적 기술로 여겨 볼 때 발레와 같은 기존의 움직임의 토대로 이미 창작 행

21) 외국의 유명 무용가들과 해외 워크샵을 통해 다양한 춤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였음은 신문 기고 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내가 생각한 것은 미국의 여류무용가 「폴린·코너」의 「테크닉」을 전중(그라함의 제자) 「스튜디오」에서 받기로 했고 오전에는 江口研究所(강구연구소)에서 대학생들의 무용강습회를 구경하고 저녁에는 고전「스튜디오」에서 연습하기로 했다. 8월 28일부터 4일간 동경에서 공연하기로 된 「안토니·튜다」의 「발레」 안무를 시중 참관하는 특권을 얻었던 것이다. 그는 영국태생으로 미국에서 대성한 「발레」계의 권위자이며 교사 안무가로 유명하다. 1939년 도미 후 전 미국 어떤 「발레」단에도 그의 안무의 자취가 없는 곳이 없다고 하며 그의 작품은 「아메리칸발레시어터」 「뉴욕시티발레」의 무대를 장식했고 「메트로폴리탄오페라 하우스」 부속 「발레」 학교장, 「줄리어드」 대학무용지도자로 있다”, 박외선(1965.9.7). 현대심리에 파고드는 「튜더」의 무용. 『동아일보』, 6면.

22) 앞의 책, p.29.

위를 시작한 것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교육에만 전념하다가 문화공보부(文化公報部)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후원으로 한국에서 첫 개인 공연을 1974년 12월 21일 국립극장에서 올리게 된다. 많은 작품을 공연하지는 않았지만, 김수영 시인의 「풀」을 소재로 한 「대지의 무리들」, 남편과의 사별의 슬픔을 묘사한 「고별」 등이 올려 진다. 박외선의 제자 정귀인은 70년대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생각한다면 김수영의 시를 무용의 소재로 선정했다는 것 자체가 커다란 의미를 갖는 공연이었다”고 말한다.²³⁾ 이 공연은 시적 감수성과 탁월한 주제의식으로 현대무용의 새로운 공연미학을 창출한 수작으로 평가받는다.

팜플렛의 인사말에서도 교육자적 면모를 확인 할 수 있다.²⁴⁾ “...저는 솔직히 무용밖에 모르고 세상을 살아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 발표회를 갖는 것은 해방 전 일본에서 갖은 이래 귀국 후는 처음입니다. 20여 년 동안 이대에서 후배양성과 작품 창작에만 몰두해오면서 저는 학교에서의 무용발표회가 곧 나의 발표회라고 생각하고 전심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말하자면 예쁜집을 꾸미는 것 보다는 거치른 森林(삼림)을 깎고, 베고 정성들여 다듬어서 어디에나 쓸모 있는 재목을 만드는 일에 더 보람을 느껴 왔습니다 ...”²⁵⁾ 이글에 박외선이 개인 발표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이유가 드러난다. 학교에서의 무용 발표회를 자신의 발표회로 여겼으며, 이러한 부분은 한양대학교 체육대학장 유근석이 『경향신문』에 기고한 무용평에서 다시 확인된다. 그의 글을 살펴보면 “예년과는 색달리 교수와 학생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제 7회 이대무용과 작품발표회는 행동어로 엮은 심포지움이었다 ... 박외선씨의 안무 「고별은 없다」는 음악의 外理(외리)에 不備(불비)한 점이 있고, 무용수가 작품을 받아들이지 못함이 안타까웠다.”²⁶⁾라고 써져있다. 매 해는 아니지만 박

23) 박현주(2012.6.26). 시대를 앞서간 예술가이자 춤의 천재-한국 현대무용 개척자 박외선. 『김해뉴스』.

<<http://www.gimha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83>, 2012.8.8>

24) 『박외선 현대무용 공연』(팜플렛). 서울: 국립극장. 1974.

25) 앞의 책.

26) 유근석(1970.6.9). 舞踊評梨大(무용평이대)무용과 작품 발표회. 『경향신문』, 5면.

외선의 개인작품이 학생들 작품과 함께 공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현대무용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은 1969년 7월 24일 대구일보가 주최한 창작무용강습회에 참석한 증진들 좌담에서 볼 수 있다. 이 좌담에는 박외선(이대교수), 송범(무용협회 이사장), 김경옥(무용 평론가, 예그린 단장), 정병호(중앙대교수), 강이문(한성여대, 무용이론), 김진걸(무용가, 한국 무용협회 이사), 정막(한성여대, 창작무용강사), 황무봉(무용가)이 참가한 좌담회로 박외선은 현대무용의 개념문제, 창작무용강습회에서 시행된 학교무용과 창작무용을 같이 취급한 교수법, 무용예술과 창작성, 체육과 무용과의 관계, 무용이 인간 육성에 미치는 영향 등과 같은 설명을 하고 있다

오늘날 행해지는 춤의 명칭을 현대무용이라기 보다 컨템포러리 댄스라고 부르는 것이 실감나죠. 오늘의 무용, 동시대의 무용, 그러니까 종래의 '모던 댄스'란 구식적인 이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게 부르고 있지요. 미국에서는 7-8년 전 벌써 바꾸어 부릅니다... 지금은 '컨템포러리 댄스'라고 부르는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유동성 있게 그 시대 그 시대에 알맞은 기본과 춤이 되어야 하니까요. 현대무용의 생명은 창작무용에 있지요. 창작을 할 수 없는 사람은 현대 무용을 할 수 없습니다. 창작을 위해서는 그 기반, 즉 미학적, 사회학적 것 인거 등 다양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감성(영혼)과 아울러 지성(육체의 운동)이 고도로 요구되는 무용이지요.²⁷⁾

좌담의 내용은 젊은 시절 박외선이 '형식에 제약되지 않는 새로운 춤'에 대한 의미가 구체화되어 있다. 또한 꾸준한 학술교류와 해외 워크숍을 통해 빠르게 학계의 흐름을 감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활발한 활동은 정년을 3년 앞두고, 후학들을 위해 빨리 퇴직한다. 박외선은 1977년 2월에 도미한 후 머스 커닝햄과 1972년도에 같이 공부했던 인연으로 톨레도대학(The University of Toledo)에서 한 학기 발레를 가르치고, 1978년 귀국해 청주사대에서 후학을 길렀다. 하지만 1981년 다시 도미해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 무용연구소를 개설해 발레, 모던 댄스를 지도하며 새로운 무용인생을 개척하였다.

27) (1968.7.25), 『대구일보』.

3. 무용학을 위한 학술활동

무용이론에 있어도 이러한 열정은 무용학도들을 위해 저술한 전문서적과 논문을 통해 전해진다. 10대 때부터 신무용을 체험한 경험과 10년간 대학에서 강의한 노트를 엮어 만든 『무용개론』은 원시무용부터 시작하여 세계 민속무용과 발레와 현대무용사를 담아 전반적인 무용 역사를 다루고 있다. 또 무용이 갖는 구성법, 표현법, 기교 등으로 목차를 구성하여 기초적 작품 창작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여기서 박외선은 “무용의 진정한 연구는 무용이 시각을 통하는 예술임을 상기하면서 아쉬운 대로 사진을 화집으로 넣어 보았다”고 밝힌다. 글로써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을 사진자료를 통해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의 분량은 57페이지나 삽입 한 것에서 그 세심함이 엿보인다.

현대무용을 계속 가르쳐 오면서 무용미의 본질이나 그 구성에 대한 소고(小考)를 『현대무용창작론』를 통해 전하고 있다. 이 책의 서문에서 무용예술을 연구하는 지도자나 전공하는 학생을 위한 입문서로 사용되고, 더 나아가서는 감상자에게도 활용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책의 목차를 살펴보면 무용의 공간적, 시간적 구성에 따른 무용미의 규정을 통해 무용의 형식과 표현구성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군무의 미학적인 면과 무용의 특징적 구성, 음악과의 관계 등을 소개하고 한다.

학술저널 『무용』에 실린 「무용에 있어서의 창작<1>」(1967)과 「무용에 있어서의 창작<2>」(1968)을 보면 창작하는 방법론을 예시를 통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건미』(1975)에 게재된 논문 「교육무용의 지도법」에서는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망을 강조하고 있다. 기술만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 아니라 인성이 바로 서야 한다는 교육관은 제자들에게 항상 “무용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어라”라고 말했다는 증언과도 상통한다.²⁸⁾ 1957년 신문에 기고한 「舞踊教育(무용교육)의 바른길」을 살펴보면 그녀의 교육관을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다.

… 우리들이 무용교육을 논할 때에도 당연히 예술무용이 그 대상이 되어야 하겠다. 무용에 있어서는 재현예술보다 창작에서 그 가치가 높은 것이다.

28) 박지연. 춤춤닷컴 홈페이지. <http://www.choomchoom.com/sub/View.php?board=bd9&data_id=193, 2012.8.3>.

오늘의 무용을 시대에 따르는 새 형식을 만들어내며 인간의 모든 감정과 사상을 미학적 법칙 하에 표현하는 예술이니 곧 무용의 본질이라 할 것이다. 유치원이나 국민 학교의 어린 학생들에게 성인들의 세계를 그리는 작품을 그대로 모사시킬 수 없다.

나는 무용콩쿨을 통해서 혹은 예술제 개인 무용발표회 등에서 여러가지 비참한 사실을 보는 적이 많다. 특히 한국무용 남방무용 등에서 보는 어른들에게만 있을 수 있는 멋과 애교를 모방시키고 눈짓손짓 허리 등을 흔들며 웃어 보이는 가하면 아이들의 생활과 리듬에서 떠난 우리나라 고전무용 승무 등을 추계 하는 것은 이해 못 할 일이다. 마치 병신노름같이 보여서 서글픈 경우가 많다. 무엇 때문에 아동들에게 무용을 가르치는 것 조차의 심스러운 일이다.²⁹⁾

여기에서 박외선은 재현예술 보다는 시대에 따르는 새 형식을 만들어 내야하며 인간의 감정과 사상을 표현하는 창작무용의 가치를 다시 강조하고 있으며, 창작을 기반으로 한 무용교육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창작의 중요성은 요즘 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창의교육'과 그 맥이 상통한다. 박외선은 도제식 교육방식이 요구되는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상상하고 창작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그녀의 제자 정의숙은 학부시절 선생의 수업이 무용실에서만 국한되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무용실에서 복도로 자유롭게 움직임의 공간을 확장하며 가르침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있다.³⁰⁾ 제한된 공간이 자유로운 상상력을 억제하고, 움직임의 범위를 축소시킨다는 점을 감안 했을 때 당시 박외선의 교수법은 매우 실험적이면서 특별했다 할 수 있겠다.

IV. 한국의 현대무용 형성과정 속에서 박외선의 의미

예술가로서 다작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박외선의 활동은 한국 무용사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음은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신무용가들의 연구소들을 중심으로 도제식 교육이 이루어졌던 방식이 학교교육으로 편입됨으로써 엘리트 교육제도 안

29) 박외선(1957.3.24), 舞踊教育(무용교육)의 바른길, 4면.

30) 정의숙 구술채록(2012.8.13).

으로 들어 올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부분은 육완순의 증언에서 다시 확인된다.

내가 대학다닐 때는 연구소가 대성황을 이루었고, 무용 잘하는 사람은 모두 무용 연구소에 소속이 되어 있었어요. 연구소에 다니는 친구들은 우리에게 부러움 그 자체였지요....(그렇지만)체육과 선생님들은 그 학생들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 자신들은 '우리가 고도의 테크닉을 체육과에 왔는데....'라고 생각하면서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무용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체육과 선생님의 실기가 우습게 보였겠지...무용발표회는 전부 무용연구소에서만 하는 것이고 대학에서는 엄두를 내지 못 할 때였어요.³¹⁾

이 증언에서 볼 수 있듯이 육완순이 입학할 당시 만해도 무용교육은 교습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높은 예술수준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대학 교육자들과의 인식의 차이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인식의 전환기 속에 무용학과 과의 창설은 경희대, 한양대 순으로 점차 무용학과가 늘어나게 된다. 서울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방대와 전문대에 늘어난 무용과는 엘리트 학문기관에 편승하여 보다 체계화된 수업과 이론을 정립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박외선이 대학에서 처음으로 현대무용을 가르치게 된 것은 현대무용 장르를 বলে, 한국무용과 더불어 학문의 전공으로 자리잡게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준 것이다. 이러한 무용의 3분법적 체계는 춤의 다양한 장르를 존재하지 못하게 한다는 맹점을 지니고 있지만, 1960년이전의 '현대무용'은 존재는 하고 있었지만 대중적으로 인식 조차되지 않았었다. 이런 점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학과 안에 현대무용 전공의 개설은 대중적으로 인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다면 한국의 무용 형성과정 안에서 박외선의 역할 외에 그녀가 지닌 교육관의 의미를 분석해 보면 3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끊임없는 학술교류를 통해 새로운 학문을 받아들여 학문의 지평을 지속적으로 넓히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신경향을 시찰하고, 전달하려는 노력을 하였다라는 점이다. 두 번째는 인성을 중요시하는 교육을 지향했다는 점이다. 그녀를 기억하고 있는 제자들의 증언들은 공통적으로 선생의 인간적인 면모와 인성을 중요시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인성은 수직적 인간관계가 아닌 수평적 인간관계로 소통을 동반하게

31) 문애령(2003), 재인용, p. 34.

된다. 마지막으로 창작으로 기반으로 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창작교육은 답습과 모방을 배제하는 것으로 다양성을 수용하고, 앞으로 발전하여 나갈 수 있는 매개가 된다.

지금의 현대무용은 2, 3세대들과 그 제자들의 왕성한 활동과 해외 연수, 유학을 통해 보다 다변화되어 그 영역 또한 세분화되어가고 있다. 2세대들이 각자의 대학에서 무용단을 조직하여 영역을 더욱 넓혀가면서 본격적인 대학 무용 단체 중심 형태로 굳어졌던 80년대를 지나 또 다른 방식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대학이란 체계는 입시형태를 통해 꾸준하게 일정 명(名)수의 현대무용 전공자를 배출시켜 현대무용의 좁은 입지를 넓혀주는 역할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거대단체로 변모한 대학무용단은 넘쳐나는 무용수들로 포화상태가 되었다. 해외연수나 유학의 기회가 늘어나면서 각자의 독립단체를 만들기 시작하고, 현재 우리나라 현대무용은 대학단체와 독립단체가 공존하는 형태를 지니고 있는 양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 속에서 박외선의 활동은 발전의 초석이 되었다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겠다.

IV. 나가는 글

본고는 한국 현대무용사에서 중요한 인물로 자주 거론되지만 본격적인 연구가 미비한 박외선의 교육, 학술, 예술적 활동을 그녀의 저작과 논문, 신문에 기고된 글, 제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알아보았다. 그 안에서 그녀의 춤과 교육관에 많은 영향을 미친 중요 인물들과 성장배경, 업적 등을 재조명하였으며, 현대무용사에서 박외선이 미친 역할과 의미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 4가지 측면에서 논의 할 수 있었다.

첫째, 대학교육으로의 진출이다. 신무용가들의 개인무용소에서 수학하는 방식의 교육을 취하고 있었던 무용을 학교교육으로 끌어들여 춤의 지성화를 가져다주었다. 학교교육으로 춤이 편입되는 것은 빠른 시간 안에 전문가를 배출함으로써

춤의 대중화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변화가 춤의 대중화에 기여를 하였지만, 예술가의 개인교습소를 중심으로 구축된 예술혼에 대한 인식은 감소했을 것이란 시각도 제시된다. 또한 1960년대 급작스러운 학과의 팽창은 한국 현대무용이 도입된 시기를 잘못 인식하는 요인으로 제공되었을 수 있다. 이러한 이면적 사항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학 중심의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여 짧은 시간 안에 무용학의 기틀을 잡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다.

둘째, 현대무용을 전공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이다. 박외선의 교육적 맥락에서 중요시 하는 창작은 현대무용이 지니고 있는 속성과 부합된다. 박외선이 현대무용 과목 보다는 발레나 창장무용 과목을 담당하고, 현대무용 테크닉을 연수 받는 과정에서 정규 클래스가 아닌 비공식적 수업을 받았다 해도 박외선의 수업방식이나 안무방식, 신문과 저작에 기고된 글을 비추어 보았을 때 현대무용의 시대정신과 감정과 사상을 충분히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무용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판단된다. 또한 근대 무용가들이 특별한 장르 구분없이 모든 장르의 춤을 추었다는 점에서 박외선 또한 그러한 범주 안에서 크게 변화되지 못한 시기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셋째, 투철한 교육관이다. 학자로서 예술가로 끊임없이 탐구하고 배우는 덕목과, 기술보다는 인성을 중요시하는 점, 흥내로 머무는 것이 아닌 스스로 참여하여 새롭게 만드는 창작교육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그녀의 교육적 열정은 해외 학술교류를 통해 새로운 학문과 예술을 받아들여 학문의 지평을 지속적으로 넓혀 주었다. 뿐 만 아니라 인성적인 측면에서도 스스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후학들의 귀감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이화여자대학교에 무용학과 개설은 여성 현대무용가들의 전성기를 낳게 하였다. 박외선의 도미 후 이화여대 졸업생들의 활약은 남성 현대무용가 보다는 여성 안무가와 무용수들을 더 많이 배출하는 결과를 낳았다. 여성 현대무용가들의 활동은 한국의 현대무용사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박외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풍부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박외선이 이화여대에 무용학과를 만들고, 현대무용이 정식

전공으로 안착된지 5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이기 때문에 그녀의 활동을 다시 되새겨 보고자 하였다. 또한 지금의 어린세대들에게 낯설게 다가오는 박외선이란 인물을 소개 하는데 이 연구의 의도가 있었다. 지금의 이 연구가 후속 연구에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고, 박외선에 대한 인물 아카이브(archive)가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박외선(1961). 『무용개론』. 서울: 보진제.
_____(1975). 『중등 새무용』. 서울: 문우사.
_____(1977). 『현대무용창작론』. 서울: 보진제.
_____(1967). 무용에 있어서의 창작<1>. 『무용』, 2: 2-6.
_____(1968). 무용에 있어서의 창작<2>. 『무용』, 3: 2-6.
_____(1975). 교육무용의 지도법. 『건미』, 1: 6-8.
- 서진은(1996). 한국의 무용예술과 교육에 대한 박외선 연구. 『예술문화논총』, 5: 45-69. 성기숙(2010). 영남지역 춤의 전통과 춤선구자 연구-마산을 중심으로-. 『무용예술학연구』, 30: 53-86.
- 문애령(2003). 표현주의 현대무용의 한국 도입과정에 관한 고찰. 『대한무용학회논문집』, 36: 21-41.
- 박외선(1957. 3. 24). 舞踊教育(무용교육)의 바른길, 4면.
(1965.9.7). 현대심리에 파고드는 『튜더』의 무용. 『동아일보』, 6면.
(1977). 나의 무용에의 회고. 『춤』, (2011년 11월호), 100-126.
- 유근석(1970.6.9). 舞踊評梨大(무용평이대)무용과 작품 발표회. 『경향신문』, 5면.
- 허엽(2003.11.13). 박외선씨 문화훈장. 『한국일보』.
- 『박외선 현대무용 공연』(팜플렛). 서울: 국립극장. 1974.
- 이육사(1937). 무희의 봄을 찾아서-박외선(朴外仙) 양 방문기.
- <http://ko.wikisource.org/wiki/%EB%AC%B4%ED%9D%AC%EC%9D%98_%EB%B4%84%EC%9D%84_%EC%B0%BE%EC%95%84%EC%84%9C,

www.kci.go.kr

2012.8.10>.

박지언. 춤춤닷컴 홈페이지. <http://www.choomchoom.com/sub/View.php?board=bd9&data_id=193, 2012.8.3>.

박현주(2012.6.26). 시대를 앞서간 예술가이자 춤의 천재-한국 현대무용 개척자 박외선. 『김해뉴스』.

<<http://www.gimha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83>, 2012.8.8>

논문투고일	2013년	2월	15일
심사일		2월	19일
심사완료일		2월	23일

Abstract

Establishing Department of Dance in Korea and Park we sun

Joohee Kim · Euisook Chung
Ph.D. of Dance / Professor of Dance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accomplishments made Park we sun through career had on dance history of Korea. She's works is establish department of modern dance. As a result, While working at department of dance of university, she spurred dance students into a variety of activities and research though expand fostering of highly-talented human resources, and devoted herself to art scientific dance researches, contributing greatly to the development of dance education and modern dance.

She continuously taught her students a variety of dance techniques for each piece of work while present the importance of creative work. From 1953 to 1977, Park We Sun worked at the department of Dance Ewha Women's University. She attended international dance teachers seminars to study new trends in overseas dance circles, dedicating to the development of domestic dance world.

This year marks the 50th anniversary of the very first dance department which founded in university. So the anniversary marked in this paper.

keywords: Park We Sun(박외선), History of dance in Korea(한국의 무용사), Establishing department of Dance(무용학과 설립), Ewha Womans University(이화여자대학교), Dance education(무용 교육)